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수행

Grandmothers and Grandchildren : Patterns of Contact and Grandmothers' Role Performance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서 동 인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Doctoral Course : Dong In Suh

목 차

I. 서 론	2.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V. 연구결과
1. 조부모역할 수행의 차원	1. 연구문제 I
2. 조모역할 수행의 관련변수	2. 연구문제 II
III. 연구방법 및 절차	V. 결론 및 제언
1. 측정도구의 작성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resent study analyzed data from 417 grandchildren in the fifth grade of the elementary school with regard to patterns of contact and the content and the level of grandmothers' role performanc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most frequent of association occurring between grandmothers and grandchildren was telephoning, next visiting and writing. The mothers, attitude and geographical proximity were consistently related to the level of the contact between grandmothers and grandchildren.

2) The family type, the attitude of the mothers and the health condition of grandmothers were related to the level of the grandmothers' role performance. The role of the grandmothers consists with six dimensions of discipliner, surrogate parenting, interference, historical and sex role adviser, confidant and material provider.

I. 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간의 접촉의 양상과 조모 역할수행의 실태를 밝히고 이에 관련된 변수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가족은 많은 성인들과 더불어 생활하기 때문에 아동의 훈육과 보호등의 정서적 안정감이나 올바른 질서감의 발달등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조부모와 손자녀의 밀도있는 관계는 조부모나 손자녀 세대에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선이었다. 특히 조모의 역할은 손자녀들에게 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서 부터 놀이 프로그램의 준비, 무릎학교의 원장의 역할까지 손자녀의 생활을 주관하는 것이었다(유안진 1980, 94).

돈독한 심리적 유대를 가졌던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근대가족에서 점차로 소원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족형태의 핵가족화, 가족개념의 변화, 독립과 개별화 가치관의 우세, 고부간 갈등의 노골적인 표출등의 요인들이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으로 고려된다.

문화인류학자 M Mead(1972)는 미국의 핵가족제도를 비판하면서 전통사회의 노인세대는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조부모세대를 모르거나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조부모와 떨어져 자라난 아동은 그만큼 문화적 손실을 본다 고 하였다. 즉 한문화의 전승과 발전에는 兩性 삼세대, 즉 조부, 조모, 부, 모, 자, 녀가 있어 각기 자기 위치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밀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험이 필요하며, 그 중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러한 관계의 균형파탄, 왜곡, 단절을 초래하여 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차질과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크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자녀출산율이 감소됨에 따라 조부모 역할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과거와는 달리 부모의 역할과 조부모의 역할이 중첩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부모역할이 장년기와 노년기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게 될것이다. 또한

가족크기가 감소되고 고립화되어 가는 현실정에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깊은 유대관계는 가족을 보호하는 支持體系가 될수도 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밀접한 관계는 손자녀의 전 생애단계에서 중요한 사회심리적 발달을 촉진시키고(Kivnick 1982) 손자녀에게 노년기에 닥치는 사회심리적 긴장을 미리 접하게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강한 연결을 갖게 해준다(Kornhaber, 1985). 조부모에게는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생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생의 의미를 찾게되고 生産性이라는 성취감을 갖게 해주며(Kornhaber 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Kivnick 1982; Robertson 1977). 또한 가족이 이혼을 비롯한 위기에 처할때 조부모가 일상적인 수단적 측면에서 손자녀를 돌보고 위로한다는 실증적 연구(Aldous 1985; Johnson 1985) 들로부터 현대사회에 있어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조부모나 손자녀의 관계는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깊어지고 범위가 넓어진다. 즉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유형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녀관계의 질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현대가족에서는 조부모됨의 보편적인 규범이 거의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George 1980, 88) 손자녀에게 행하는 조부모의 역할의 내용과 수준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연구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역할수행이나 객관적인 접촉빈도에 대한 실태조차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부모를 중심으로한 관계선 중 주로 고부관계의 부정적인 갈등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나 손자녀와 조부모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을 시도하기 보다는 기초적인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갖는다. 일차적으로 손자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조모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다.

첫째, 조모와 손자녀간의 접촉빈도는 어떠한가?

둘째, 친조모·외조모여부, 손자녀의 성별, 가족형태, 지역적 근접성, 대면적 접촉, 모의 취업, 조모의 연령.

건강, 학력,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가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의 역할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의 파악은 앞으로의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조부모 역할수행의 차원

조부모는 가족안에서 歸屬의인 신분을 가지나 이 지위에는 規範의인 役割行動 期待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조부모 역할에 대한 규범적인 지침이 모호하기 때문에 조부모의 역할수행은 시대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Bengtston 1985). 본 연구에서의 조모 역할 수행의 차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손자녀와 조부모의 관점에서 살펴본 조부모역할 수행측면과 조부모의 관점에서 본 조부모됨의 의미와 유형을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들을 참고할 때 미국의 가족에서는 '無干涉의 規範'이 노부모와 성인 자녀 관계에서 지배적이라는 사실(Kornhaber 1985)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Kornhaber와 Woodward(1981)의 5세에서 18세까지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부모 역할의 5가지 차원을 적용하였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 가족역사를 제공하는 역사가의 역할, 생활의 기초를 가르치고 지혜를 전수하고 또한 손자녀의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케 하는 훈육자의 역할, 손자녀에게 노화과정, 미래의 가족관계와 조부모 역할을 보이는 역할 모델로서의 역할, 손자녀에게 이야기해주며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마술사의 역할, 그리고 손자녀의 지지체계를 확장시키는 대리모의 역할이다.

조부모를 대상으로 Neugarten과 Weinstein(1964)은 조부모의 역할 수행에 따라 5가지의 유형을 추출하였다. 손자녀의 양육방법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자신은 오직 주어진 조부모 역할만 수행하는 공식적인 형, 여가시간을 손자녀들과 놀아주는 것을 낙으로 삼는 기쁨추구형, 부모를 대신하여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리부모형, 가족안의 최고권위를 유지하고 젊은 세대의 복종을 요구하며 가정내의 지혜의 원천임을 내세우는 지혜원천형, 공식적인 가족모임이외에는 별로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遠거리형이다.

Robertson(1977)은 조모가 9개의 수단적 행동과 4개의 표현적 행동을 수행하느냐 여부와 그 빈도를 규명하고 조모역할의 의미에 근거한 조모역할 유형과의 관계를 밝혔다. 조모역할의 의미는 조부모됨이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또는 규범적 차원과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개인적 차원을 조합시켜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두개의 차원은 독립적이나 전적으로 상호배타적이지는 않다. 4개의 유형은 조부모됨의 사회 규범적인 의미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행동적인 차원에서도 조부모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遠거리형, 사회 규범적인 의미는 두지 않으나 개인적 의미를 찾는 개인적인 형, 사회 규범적인 의미는 높이 인식하나 손자녀에게 개인적인 애착을 느끼지도 않고 행동면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는 상정형,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 규범적인 의미와 동시에 손자녀와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갖는 화해형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를 대상으로한 Kivnick(1983)은 조부모됨을 조부모 역할이 생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심형, 지혜롭고 존경받는 가치있는 노인, 관대하고 인내하는 너그러운 존재, 자손을 통한 계속성과 불멸성의 유지, 과거를 회상하는 수단으로서의 조부모됨등 5가지의 차원으로 밝혔다.

Cherlin과 Furstenberg(1985)의 십대 손자녀를 가진 조부모를 대상으로한 연구는 미리 표준화된 역할내용을 선정하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와 무엇을 하는가를 직접 질문하여 얻은 응답을 요인분석하여 썬서비스의 교환과 손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두개의 차원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은 조부모의 역할수행의 내용을 파악하기위한 연구와 실제의 조부모의 역할수행과 조부모됨이 갖는 의미와 조부모역할에서 얻는 만족도에 기초하여 조부모됨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조부모의 역할내용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또는 어느 연령층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적 시도이므로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조부모의 역할내용인 대리모의 역할, 가계의 역사를 계승하는 역할, 물질적 제공자의 역할,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

훈계자의 역할, 손자녀를 위한 수단적 역할, 종교 교육자의 역할과 성역할 조연자의 역할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편塚本哲(197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 의하면 손자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을 간섭하기 때문에 매우 불만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이 사실은 본 연구를 위하여 시행한 손자녀를 대상으로한 예비면담에서도 밝혀진 내용이므로 본 연구의 조모역할 수행 척도에 조모의 손자녀 생활 간섭자의 역할을 추가시키고자 한다. 서구의 가족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서로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새로운 社會的 契約(Kornhaber, 1985)의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듯이 서구의 가족과 동양의 가족문화는 차이가 있어 서구의 관련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추론된다.

2. 조모의 역할수행의 관련변수

1) 친조모, 외조모의 여부

주부를 대상으로한 연구들(최재석 1975; 김경원 1989)은 현재 우리의 친족체계는 접촉빈도면에서 媿家와 親家의 兩係의 으로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 두 방향의 관계의 성격은 뚜렷이 구분되어 시가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적 관계이고 친정관계는 친밀하고 비형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외조모와 손자녀와의 상호적인 접촉이 과거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케 하며 동시에 조모와 손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관계와 상호작용의 성격이 친조모나 또는 외조모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나 하는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핵가족간의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친족관계에 관한 규범체계를 지지하는 兩係出系의 미국의 親族關係綱에서는 손자녀와 외조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친조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다 더욱 빈번하고 특히 외조모와 가장 정서적인 밀접성을 보인다(Kahana와 Kahana 1970; E Hoffman 1979; SH Matthews와 J Sprey 1985).

2) 손자녀의 성별

Bengtson(1985)의 삼세대에 대한 연구는 세대간의 애착이 각세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성별의 연결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조부와 손자가 조부와 손녀간에서보다 더욱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와 손자녀관계를 여러 관계선에 따라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3) 조모와의 동거 여부, 지역적 근접성, 조모와 손자녀의 對面的 접촉

조모가 손자녀와 동거하느냐의 여부와 거주지의 지역적 거리는 조모와 손자녀의 대면적 기회를 제한하고 조모의 역할수행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친족관계망에 대한 연구에서 지리적 근접성은 관계의 기능적 유대에 正的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로 다양한 경향을 보이지만(김경원, 1989: 19) 조모의 역할수행에 국한시킬때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4) 모의 취업

취업부부의 가족형태를 밝힌 한연구(서동인, 1985)에서 이 연구대상의 42%가 삼세대 가족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삼세대가족 형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취업주부들이 조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의 취업여부는 조모역할 수행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

5) 조모의 연령, 건강과 학력

조모의 연령이 같은 연령층의 同時代의 效果를 반영하여선지 또는 연령에 따른 노화의 정도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지가 규명되지 않았으나 조모역할 수행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Neugarten과 Weinstein(1964)은 조부모의 연령이 65세 이상일 때 공식적인 형으로 그 이하의 연령에서는 기쁨을 추구하는 형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Wood와 Robertson(1976)의 연구에서도 손자녀와 조부모간의 연합은 조부모의 연령과 逆의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조모의 연령은 신체적인 건강상태의 영향과도 혼합되어 효과를 미칠 수 있고 또한 상대적인 위치의 손자녀의 연령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론되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고려될 필요가 크다.

Bengtson(1985)은 조모의 연령의 효과가 미치는 또

다른 측면인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의 갈등과 긴장을 더욱 보고하는 반면 연령이 많은 조부모들은 성인 자녀와 손자녀간의 긴장이나 차이를 극소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연령에 따른 조부모의 태도는 손자녀와의 관계에 다른 영향을 주리라고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모의 연령, 조모의 건강상태와 조모의 교육수준이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역할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6) 조모에 대한 모의태도

모는 손자녀와 조부모를 연결하는 중간세대로서 세 대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힘을 갖는다. 또한 모의 조부모에 대한 감정은 자녀에게 전이되고 이러한 감정과 태도는 자녀의 일생동안 지속된다.

Robertson(1976)의 18~26세 대상의 2/3이상이 부모가 조모와 손자녀관계를 통제하고 있다고 하였고, Thompson과 Walker(198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손녀들이 외조모에 대하여 갖는 친밀감이 모의 태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외조모의 손자녀에 대한 친밀감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본 연구 대상의 연령을 고려한다면 모의 태도는 조모와 손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의 작성

본 연구의 조모역할 수행척도는 대리모의 역할, 가계의 역사를 계승하는 역할, 물질적 제공자의 역할,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 혼계자의 역할, 손자녀를 위한 수단적 역할, 종교 교육자의 역할, 성역할 조언자의 역할과 생활의 간섭자의 역할을 포함시켰다. 조모의 역할수행 척도는 위의 내용을 측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3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대상의 응답을 요인분석한 결과에 따라 6개의 요인을 측정하는 25개의 문항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eigen value 1.0이상의 7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나(표 1) 제 6요인의 문항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삭제하였고 제1요인의 문항중 7번, 8번과 제 7요인의 31번의 문항을 제외시켰다. 이 결과 후계자 역할의 6개 문항, 대리모 역할의 4개 문항, 생활 간섭자

역할의 5개 문항, 가계의 역사와 성역할 조언자 역할의 4개문항, 손자녀 지지자 역할의 4개문항과 물질적 제공자 역할의 2개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본 척도의 문항은 "전혀 하지 않는다" - "아주 자주 하신다"의 양극을 갖는 Likert형 5점 척도로 전체 조모역할 수행지표는 6개 요인의 평균점수를 합하여 산출하였고 6점에서 30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의 경우는 6점이고 "아주 자주 하신다"의 경우는 30점이 된다.

본 척도의 신뢰도검증은 Cronbach's α 모델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는데 전체 문항은 $\alpha=0.85$ 이었고 각 요인별로는 혼계자 역할 $\alpha=0.80$, 대리모의 역할 $\alpha=0.71$, 생활 간섭자 역할 $\alpha=0.65$, 가계 역사와 성역할 조언자 역할 $\alpha=0.71$, 손자녀 지지자 역할 $\alpha=0.65$, 그리고 물질적 제공자 역할은 $\alpha=0.59$ 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 중 신뢰도 계수가 낮은 경우가 있으나 극히 문항수가 적은 것이 그 이유로 고려되고 또한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가 높은 경향이므로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손자녀와 조모의 접촉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 할머니를 어느정도 자주 뵈는가요? (2) 할머니택에 얼마나 자주 가는가요? (3) 할머니는 여러분집에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4) 할머니께 얼마나 자주 전화하나요? (5) 할머니는 얼마나 자주 전화하시나요? (6) 할머니께 얼마나 자주 편지 하나요? (7) 할머니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주 편지하시나요? 의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접촉빈도의 영향변수를 밝히기 위하여 조모의 손자녀에의 방문과 전화, 편지를 하는 정도를 합한 점수와 손자녀의 조모에의 방문, 전호와 편지의 빈도를 합한 점수를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적 근접성은 조모가 (1) 서울거주 (2) 경기도 거주 (3) 그외의 지방 거주로 구분하였다.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는 (1) 엄마는 할머니에게 잘하시나요? (2) 엄마는 할머니에게 잘해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3) 엄마와 할머니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4) 엄마는 할머니께 전화드리라고 말씀하시나요? 의 4개의 문항으로 측정을 시도하였는데 (1)에서 (3)까지의 질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응답을 유도하는 경향이 큰것으로 고려되고 또한 실

표 1. 31문항에 대한 요인행렬표

문항 번호	내용	요인 1 혼계자 역할
1.	할머니는 무엇이 옳고 나쁜지를 가르친다.	.72
2.	할머니는 사람이 정직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69
3.	할머니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65
4.	할머니는 어른을 존경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64
5.	할머니는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훈계하신다.	.64
6.	할머니는 예절을 가르치신다.	.53
7.	할머니는 나의 건강에 신경써 주신다.	.50
8.	할머니는 나를 좋아하신다.	.48
9.	할머니는 엄마가 외출할때 집을 봐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	.07
10.	엄마대신 집안일을 대신 하신다.	.06
11.	할머니는 엄마가 아플때 엄마대신 집안일을 도와 주신다.	.28
12.	할머니는 내가 필요로 할때 나를 도와 주신다.	.33
13.	할머니는 나에게 잔소리를 하신다.	.09
14.	할머니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신다.	-.05
15.	할머니는 우리 집안에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21
16.	할머니는 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때 나를 꾸짖으신다.	.37
17.	할머니는 나의 생활을 간섭하신다.	.21
18.	집안의 조상어른과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 하신다.	.20
19.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다.	.23
20.	부모의 어릴때 이야기를 해주신다.	.12
21.	할머니는 남자(여자)다워야 한다고 하신다.	.39
22.	할머니는 나와 함께 놀아 주신다.	.17
23.	내가 원할때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신다.	.07
24.	나는 할머니와 함께 외출한다.	.10
25.	할머니는 내가 속상할때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31
26.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다.	.16
27.	할머니는 종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06
28.	할머니는 집안에 문제가 있을때 식구들과 의논하시고 해결하시려고 하신다.	.24
29.	용돈을 주신다.	.16
30.	선물을 주신다.	.18
31.	엄마가 야단을 칠때 내편을 들어주신다.	.01

서동인 :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수행

요인 2 대리모 역할	요인 3 생활간섭 자역할	요인 4 가계역사 성역할조 연자역할	요인 5 손자녀지 지자역할	요인 6	요인 7 물질적제 공자역할	communality
.13	-.03	.13	.14	.09	.01	.63
.08	-.06	.15	.19	.14	-.01	.62
.03	.21	.08	-.04	.03	.18	.46
.07	.11	.10	-.01	.10	.17	.59
.21	.03	.16	.16	.05	.03	.58
.15	-.05	.20	.19	.35	-.07	.70
.25	-.24	.16	.17	.20	.19	.48
.11	-.30	.06	.39	-.00	.25	.56
.76	.17	.14	.15	.14	.03	.41
.76	.13	.09	.02	.16	.03	.47
.69	-.08	.18	.04	.12	.07	.49
.52	-.11	.08	.22	-.14	.12	.48
.12	.84	-.04	.01	.07	-.08	.50
-.04	.81	-.00	-.08	-.13	-.03	.62
-.08	.47	.21	-.08	-.35	.00	.40
.15	.46	.12	-.30	.08	-.09	.68
.23	.42	-.13	.23	.37	-.06	.46
.14	.01	.73	.05	.14	.06	.56
.16	-.05	.68	.15	.01	.15	.57
.19	.05	.54	.20	.18	.19	.61
.00	.06	.47	.12	.12	-.01	.55
.07	-.09	.31	.69	.04	-.05	.47
.05	-.07	-.10	.66	.08	.30	.48
.14	.07	.30	.51	.09	.12	.74
.22	-.11	.17	.51	.09	.12	.47
.36	-.13	.02	.17	.59	.16	.52
-.01	.15	.29	.01	.55	.10	.57
.14	-.19	.22	.02	.55	.01	.43
.07	-.05	.04	.06	.15	.80	.51
-.06	.04	.18	.29	.28	.59	.69
.17	-.11	.21	.18	-.23	.55	.50

제의 응답이 “그렇다”와 “아주 그렇다”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분포를 고려하여 (4)의 응답을 조모에 대한 모의태도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채택하였다.

2.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학교 5학년의 남녀학생이다. 강북지역의 2개 학교와 강남의 신림동, 도곡동, 영등포지역의 3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을 하였다.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친할머니용” “외할머니용” 450부를 학교에서 배부하여 학생들이 기재토록 하였고 회수된 질문지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친할머니용 207부와 외할머니용 210부의 총 41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은(표 2)에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48.2%, 여학생 51.8%이다. 연령은 9세에서 10세까지 25.7%, 11세에서 12세까지 74.4%로 나타났는데 이는 만의 나이로 응답하는 학생과 우리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수	집단	빈도	%	변 수	집단	빈도	%
손자녀의 성별	남자	201	48.2	가 족 형 태	동거	84	20.1
	여자	216	51.8		분거	332	79.6
손자녀의 연령	9~10세	107	25.7	모 의 취업유무	취업	146	35.0
	11~12세	310	74.4		비취업	265	63.5
조모의 연령	51~60세	96	23.0	부 의 연 령	32~40세	124	29.7
	61~70세	199	47.7		41~50세	238	57.1
	71~80세	80	19.2		51~52세	29	7.0
	81~92세	19	4.6	부 의 학 력	국졸	21	5.0
	무응답	23	5.5		중졸	31	7.4
조모의 학력	무학	27	6.5	고졸	108	25.9	
	국졸	64	15.3	대졸	159	38.1	
	중졸	78	18.7	무응답	98	23.5	
	고졸	74	17.7	모 의 연 령	30~40세	274	65.7
	대졸	35	8.4		41~50세	113	27.1
무응답	140	33.6	51~54세		4	1.0	
조모의 건강	좋지않다	129	30.9	모 의 학 력	국졸	34	8.2
	보통이다	47	11.3		중졸	54	12.9
	좋다	236	56.6		고졸	131	31.4
조부의 생존여부	생존	189	45.3	대졸	88	21.1	
	사망	226	54.2	무응답	110	26.4	
조모의 거주지 (분거의 경우)	서울	114	34.3				
	지방	161	48.5				
	모름	57	17.2				

나라 나이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모의 연령은 평균 66.5세로서 51세에서 92세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51세에서 60세까지 23.0%, 61세에서 70세까지 47.7%, 71세에서 80세까지 19.2%, 81세 이상이 4.6%, 무응답이 5.5%로 나타났다. 조부의 생존은 45.3%, 사망은 54.2%로 나타났고 가족형태는 동거 20.1%, 분거 79.6%를 보이고 분거하는 집단에서 조모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34.3%, 지방거주 48.5%, 모름이 17.2%로 밝혀졌다.

통계처리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 분산분석(ANOVA), T검증, 요인분석 및 중분류분석(MCA)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문제 I : 조모와 손자녀의 접촉빈도와 관련변수

표 3. 조모와 손자녀의 접촉빈도

변 수	집 단	빈도	%	변 수	집 단	빈도	%
대면적 접촉	매일	11	3.3	조모의 전화	매일	16	4.8
	일주일에 한두번	82	24.7		일주일에 한두번	95	28.6
	한달에 한두번	72	21.7		한달에 한두번	94	28.3
	반년에 한두번	101	30.4		반년에 한두번	54	16.3
	일년에 한두번	60	18.1		일년에 한두번	57	17.2
	전혀 없다.	2	.6		전혀 없다.	10	3.0
합 계		328	98.8	합 계		326	98.2
손자녀의 방문	매일	8	2.4	손자녀의 편지	한달에 한두번	41	12.3
	일주일에 한두번	68	20.5		2~3달에 한두번	39	11.7
	한달에 한두번	76	22.9		반년에 한두번	46	13.9
	반년에 한두번	100	30.1		일년에 한두번	29	8.7
	일년에 한두번	74	22.3		전혀없다.	173	52.1
	전혀 없다.	3	.9		합 계		328
합 계		329	99.1	합 계		328	98.8
조모의 방문	매일	8	2.4	조모의 편지	한달에 한두번	17	5.1
	일주일에 한두번	55	16.6		2~3달에 한두번	20	6.0
	한달에 한두번	65	19.6		반년에 한두번	22	6.6
	반년에 한두번	89	26.8		일년에 한두번	15	4.5
	일년에 한두번	102	30.7		전혀 없다.	254	76.5
	전혀 없다.	9	2.7		합 계		328
합 계		328	98.8	합 계		328	98.8
손자녀의 전화	매일	18	5.4	손자녀의 전화	일주일에 한두번	105	31.6
	일주일에 한두번	105	31.6		한달에 한두번	92	27.7
	한달에 한두번	92	27.7		반년에 한두번	48	14.5
	반년에 한두번	48	14.5		일년에 한두번	50	15.1
	일년에 한두번	50	15.1		전혀 없다.	9	2.7
	전혀 없다.	9	2.7		합 계		322
합 계		322	97.0	합 계		322	97.0

조모와 동거하고 있는 84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들의 조모와의 접촉빈도는(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대면적 접촉에 있어서 일년에 한번도 없었던 대상은 0.6%, 일년에 한두번 18.1%, 반년에 한두 번 30.4%, 한달에 한두 번 21.7%, 일주일에 한두 번 24.7%, 매일 3.3%로 나타났다. 대상의 50.0% 이상이 한달에 한 두 번이상으로 조모와 대면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손자녀의 조모에의 방문은 일년동안 전혀 없었다 0.9%, 일년에 한 두번 22.3%, 반년에 한두 번 30.1%,

한달에 한 두번 22.9%, 일주일에 한 두번 20.5%, 매일 2.4%로 밝혀졌고 조모가 손자녀를 방문하는 것은 일년에 전혀 없었다 2.7%, 일년에 한 두번 30.7%, 반년에 한 두번 26.8%, 한달에 한 두번 19.6%, 일주일에 한 두번 16.6%, 매일 2.4%로 나타난다.

전화에 의한 접촉은 손자녀가 조모에게 하는 경우에는 일년에 전혀 없다 2.7%, 일년에 한 두번 15.1%, 반년에 한 두번 14.5%, 한달에 한 두번 27.7%, 일주일에 한 두번 31.6%, 매일 5.4%로 나타났고, 조모가 손자

표 4. 관련변수에 따른 조모와 손자녀의 접촉빈도

	변수	집 단	빈도	평균	F검증	변수	집단	빈도	평균	T검증		
조 모	조모의 연령	51~70세	234	8.59	0.01	친조모	친조모	137	8.37	-1.39		
		71~92세	70	8.56		외조모	외조모	186	8.77			
주 도 의	조모의 학력	무학-국졸	66	8.05	6.14**	손자녀의 성별	남자	148	8.36	-1.54		
		중졸	59	8.66			여자	175	8.81			
		고-대졸	87	9.52			모의 취업	99	8.62		.30	
접 촉	조모의 건강	좋다	182	8.80	1.63	취업여부	비취업	198	8.52			
		보통이다	36	8.03			지역의 근접성	서울	113		9.64	5.89***
		좋지않다	100	8.42				지방	158		7.96	
	모의 태도	하신다	168	9.78	47.21***							
		보통이다 하시지 않는다	59 79	8.08 6.85								
손 자 녀	조모의 연령	51~70세	230	9.50	.26	친조모	친조모	135	9.48	-.77		
		71~92세	69	9.70		외조모	외조모	184	9.73			
주 도 의	조모의 학력	무학-국졸	66	8.77	7.25***	손자녀의 성별	남자	148	9.36	-1.55		
		중졸	57	9.54			여자	171	9.85			
		고-대졸	86	10.45			모의 취업	100	9.86		1.55	
접 촉	조모의 건강	좋다	181	9.87	1.70	취업여부	비취업	193	9.45			
		보통이다	34	9.24			지역의 근접성	서울	111		10.37	3.78***
		좋지않다	99	9.30				지방	156		9.13	
	모의 태도	하신다	169	10.83	43.66***							
		보통이다 하시지 않는다	58 75	9.14 7.73								

**p<.01

***p<.001

녀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일년에 전혀 없다 3.0%, 일년에 한두 번 17.2%, 반년에 한 두번 16.3%, 한달에 한 두번 28.3%, 일년에 한 두번 28.6%, 매일 4.8%이다.

손자녀가 조모에게 편지를 하는 경향은 일년에 전혀 없었다 52.1%, 일년에 한 두번 8.7%, 반년에 한 두번 13.9%, 2~3달에 한 두번 11.7%, 한달에 한두번이 12.3%로 대상의 절반이상이 편지를 통한 접촉은 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조모가 손자녀에게 편지를 하는 경향은 일년에 전혀없다 76.5%, 일년에 한두번 4.5%, 반년에 한 두번 6.6%, 2~3달에 한 두번 6.0%, 한달에 한 두번 5.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향을 보면 조모와 손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전화에 의한 접촉이 제일 높아 조모의 61.7%와 손자녀의 64.7%가 한달에 한 두번 이상 전화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다음으로는 대면적인 접촉으로 조모의 38.6%와 손자녀의 45.8%가 한달에 한 두번이상 서로를 방문하고 있다. 조모가 손자녀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손자녀가 조모를 방문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지를 통한 접촉은 제일 낮은 경향을 보여

손자녀의 52.1%와 조모의 76.5%가 이러한 류의 접촉을 하지 않고 조모가 손자녀에게 편지를 하는 경향은 손자녀가 조모에게 편지하는 경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인다.

조모와 손자녀간의 실제적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기 위하여 조모의 방문, 전화와 편지의 응답을 합한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본 연구에서 선택한 10개의 변수중 동거여부와 대면적 접촉을 제외한 8개의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4). 조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1$).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p<.001$) 그리고 조모가 서울거주일 경우($p<.001$)에 조모의 손자녀와의 접촉이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자녀의 방문과 전화 그리고 편지의 접촉도 조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1$), 조모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일수록($p<.001$), 조모가 서울거주일 때($p<.001$)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진 조모의 학력,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와 지역의 근접성이 다른 관련변수를 통제한 후 유의한 독립적인 효과를

표 5. 조모 주도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변 수 총평균=8.89	빈도	총평균으로 부터의 편차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모의 태도			
하지 않는다	43	-2.08	-1.84
보통이다	29	-.48	-.54
하신다	107	.97	.89
		.50	.45
조모의 학력			
무학-국졸	52	-.49	-.32
중졸	54	-.21	-.02
고졸-대졸	73	.50	.24
		.17	.09
지역의 근접성			
서울거주	76	.92	.69
지방거주	103	-.68	-.51
		.31	.23
총 계	179	$R^2 = .309^{***}$	

*** $p<.001$

*사례수가 적은것은 분거하는 대상에서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표 6. 손자녀 주도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변 수 총평균 : 9.824	빈도	총평균으로 부터의 편차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모의 태도			
하지 않는다	41	-2.21	-2.02
보통이다	28	-.75	-.79
하신다	107	1.05	.98
		.52	.48
조모의 학력			
무학-국졸	52	-.59	-.43
중졸	52	-.21	-.05
고-대졸	72	.58	.35
		.19	.12
지역의 근접성			
서울거주	75	.72	.48
지방거주	101	-.54	-.36
		.23	.16
총 계	186	R² = .306***	

***p<.001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중분류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에타값과 베타값을 비교해보면 조모 주도의 접촉에서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는 .50에서 .45 (p<.001)로 지역의 근접성은 .31에서 .23(p=.001)으로 타 변수를 통제한 결과 설명력이 약간씩 낮아졌으나 여전히 유의한 독립적 효과를 미쳤다. 반면에 조모의 학력은 .19에서 .12(p=.393)로 낮아져 주효과를 잃게 되어 손자녀 주도의 접촉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는 없다고 하겠다. 손자녀 주도의 접촉에서(표 6) 에타값과 베타값을 비교하면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는 .52에서 .48(p<.001)로 지역의 근접성은 .23에서 .16(p<.05)으로 설명력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독립적인 효과를 주고 있고 조모의 학력은 .19에서 .12(p=.173)로 낮아져 주효과를 잃게되어 손자녀 주도의 접촉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는 없다고 하겠다.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가 조모나 손자녀 주도의 접

촉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친다. 조모 주도의 접촉과 손자녀 주도의 접촉에서 각각 위의 세 변수를 삼원분석하여 상호작용이 없음을 확인하였다¹⁾.

2. 연구문제 II :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의 역할수행과 관련변수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의 역할수행의 일반적인 경향은 평균 20.17로서 7점에서 26.32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조모역할수행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써 1점에서 2점은 “하지 않는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에서 5점은 “하신다”를 나타내도록 작성되어 있고 6개의 요인의 평균 점수를 합하여 전체적인 조모의 역할수행정도를 산출하였으므로 6점에서 18점까지를 비교적 조모의 역할수행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18.01점에서 24점까지를 중간 수준으로 24.01점에서 26.32점까지를 높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의 역할수행의 정도가 낮은 집단이 24.7%,

註 1) 중분류분석은 독립변수들간의 통계적 상호작용이 있을때는 예측값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독립변수들간의 상호작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홍두승 1987 : 269, 337-8).

중간 집단이 63.3%, 높은 집단이 12%로 나타나고 있다.

조모역할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훈계자 역할이 가장 높은 수준(평균=4.18)으로 수행되고 그 다음 대리모 역할(평균=3.67), 물질적 제공자 역할(평균=3.54), 손자녀 지지자 역할(평균=3.20), 지계 역사와 성역할 조언자 역할(평균=3.02) 그리고 생활 간섭자 역할(평균=2.60)의 순위로 조모역할 수행정도가 낮아졌다.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역할 수행 정도와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친조모, 외조모의 여부, 손자녀의 성별, 지역의 근접성, 모의 취업, 조모의 연령, 조모의 학력에 따라 조모역할 수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고 동거여부($p < .01$), 대면적 접촉빈도($p < .001$), 조모의 건강($p < .05$)과 모의 태도($p < .001$)가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손자녀가 조모와 동거할 때, 조모의 건강이 좋을 때,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대면적 접촉빈도가 많을

수록 조모역할 수행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Scheffé검증 결과 건강이 좋은 조모집단과 보통집단에서, 모의 태도가 “하신다” 집단과 “하시지 않는다” 집단에서 그리고 “보통이다” 집단과 “하신다”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대면적 접촉 빈도가 낮은 집단과 중간집단간에, 중간집단과 높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모역할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훈계자 역할은 동거할 때($p < .05$)와 조모의 건강이 좋은 집단에서($p < .05$) 높게 나타났고 대면적 접촉빈도($p < .01$)와 모의 태도($p < .001$)와는 정적 상관을 가지며 대리모역할은 동거와($p < .01$), 모가 취업할 때($p < .05$) 그리고 모의 태도($p < .001$)가 적극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고 생활간섭자 역할은 동거할 때($p < .001$)와 조모의 연령($p < .05$)이 많을수록 높아졌다. 손자녀 지지자 역할은 손녀($p < .01$)와 조모의 건강이 좋은 집단에서($p < .05$)

표 7. 관련변수에 따른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의 역할수행

변수	집 단	빈도	평균	F검증	Scheffé검증	변수	집 단	빈도	평균	T검증
조모의 연령	51~70세	287	20.13	.03		친조모	친조모	207	20.03	.38
	71~92세	99	20.20			외조모	외조모	202	20.32	
조모의 학력	무학-국졸	90	20.60	.23		손자녀	남자	196	19.93	-1.37
	중졸	78	20.27			성별	여자	213	20.39	
	고·대졸	104	20.56			가족	동거	82	21.00	2.67**
조모의 건강	좋지 않다	125	19.95	4.18*	1 2 3	형태	분거	326	19.98	
	보통이다	47	19.03		1					
	좋다	232	20.50		2	모의	취업	144	20.43	1.13
					3 *	취업	비취업	259	20.04	
모의 태도	하시지 않는다	88	17.76	29.92***	1 2 3	지역의	서울	114	20.08	.22
	보통이다	57	19.93		1	근접성	지방	161	19.99	
	하신다	171	21.06		2*					
					3* *					
접촉 빈도	일년에 한두번 이하	61	18.54	7.90***	1 2 3					
	반년에 한두번	100	19.97		1					
	한달에 한두번 이상	161	20.53		2*					
					3*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

변 수 총평균 : 19.97	빈도	총평균으로 부터의 편차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모의 태도			
하지 않는다	78	-2.21	-2.04
보통이다	55	-.02	.06
하신다	168	1.03	.93
		.40	.37
접촉빈도			
일년에 한두번 이하	55	-1.36	-.64
반년에 한두번	92	-.09	.01
한달에 한두번 이상	154	.54	.22
		.20	.09
조모의 건강			
좋지 않다	95	-.15	-.29
보통이다	35	-1.31	-.98
좋다	171	.35	.36
		.15	.13
총 계	301	R² = .184***	

*분거하는 사례수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p<0.001

높고 대면적 접촉이 많을수록(p<.01), 모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p<.001)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계역사와 성역할 조연자 역할에서도 손녀(p<.01)와 조모의 건강이 좋은 집단에서(p<.05) 높고 대면적 접촉이 많을수록(p<.01) 모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p<.001)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제공자 역할은 외조모(p<.01), 분거(p<.05)의 경우 수행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전체적 조모역할 수행에 영향변수로 밝혀진 동거여부, 대면적 접촉, 조모의 건강과 모의 태도가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중분류분석을 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었다. 동거여부를 제외한 위의 변수들이 분거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중분류분석에서는 동거여부를 제외하였다. 모의 태도, 조모의 건강, 접촉빈도를 삼원분산분석하여 p<.05수준에서 상호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타변수를 통제한 후에 모의 태도와 조모의 건강에 따른 조모역할 수행의 차이는 두 변수 모두 하위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반면 접촉빈도는 일년에 한두번 집단과 한달에 한두번이상 집단간의 차이가 -.82점에서 -.42점으로 크게 줄었다. 에타값과 베타값을 비교해 보면 모의 태도는 .40에서 .37(p<.001)로 건강은 .15에서 .13(p<.05)로 설명력이 낮아졌다. 반면 접촉빈도는 타변수를 통제한 결과 주효과를 상실(p=.247)하였으므로 조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는 없다.

이상에서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역할 수행은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분거일 경우에는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 조모의 건강의 순위로 독립적인 효과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가 손자녀주도의 접촉과 조모주도의 접촉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한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역할 수행에서도 가장 큰 독립적인 효과를 미치는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주부가 친족체계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보겠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와 손자녀관계의 연구에 있어 중간세대인 부모를

포함시키는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모와 손자녀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적 작업으로 국고 5학년을 대상으로 조모와 손자녀간의 접촉양상과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역할 수행의 내용과 정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모의 61.7%, 손자녀의 64.7%가 한달에 한두번 이상 전화하고 조모의 38.6%와 손자녀의 45.8%가 한달에 한두번 이상 서로를 방문한다. 편지를 통한 접촉은 제일 낮은 경향을 보여 조모의 76.5%와 손자녀의 52.1%가 전혀 이러한 류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조모 주도의 접촉과 손자녀 주도의 접촉은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증가하고 조모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 높았다.

둘째,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역할 수행은 훈계자 역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다음으로는 대리모 역할, 물질적 제공자 역할, 손자녀 지지자 역할, 가계역사와 성역할 조인자 역할 그리고 생활 간섭자 역할의 순위로 수행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조모역할 수행은 조모와 손자녀가 동거할 때 분거하는 경우보다 높고, 분거하는 대상에서는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그리고 조모의 건강이 좋은 집단일 때 더 높은 수준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관련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때 까지는 잠정적이라할 수 있으며 앞으로 무선표집의 접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조모역할은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역할 내용뿐만 아니라 조모의 존재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손자녀에게 지각될 수 있는 상징적 역할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조모역할 내용이 다를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한 척도의 작성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조모역할 수행과 조모와 손자녀간의

접촉을 파악하기 위해서 손자녀가 지각한 측면을 측정하였다. 실제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대상을 모와 조모까지로 포함시켜 실제에 접근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는 다차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성격상 분거의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동거할 때와 분거하는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조모와 손자녀 관계의 회합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주제로 하였는데 앞으로 이 관계의 질적인 면을 다루는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참고 문헌

- 1) 김경원 :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 2) 김재은 :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1974
- 3) 서동인 :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 4) 이효재 : 도시인의 친족관계. 한국연구총서 27. 서울 : 한국연구원, 1971
- 5) 유안진 :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정민사, 1980
- 6) 윤진 :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5
- 7) 조복희 : 조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1
- 8) 최재석 : 한국농촌사회연구. 서울 : 일지사, 1975
- 9) 홍두승 : 사회조사분석 : 다산출판사, 1987
- 10) 塚本哲 : 老人ども. 京都 : ミネルヴァ書房, 1978
- 11) Aldous J : Parent-adult relations as affected by the grandparent status. In Bengtson VL and Robertson JF (Eds.),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Inc, 1985
- 12) Barranti CR :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 family resource in and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 : 343-352, 1985

- 13) Bengtson VL : *Diversity and symbolism in grandparental roles. In Bengtson VL and Robertson JF(Eds.),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Inc., 1985*
- 14) Cherlin A and Furstenberg FF : *Styles and strategies of grandparenting. In Bengtson VL and Robertson JF (Eds.),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Inc., 1985*
- 15) George LK :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Belmont, CA : Brooks/Cole, 1980*
- 16) Hoffman E : *Young adults' relations with their grandparents :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0 : 299-310, 1979*
- 17) Johnson CL : *Grandparenting options in divorcing families :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In Bengtson VL and Robertson JF(Eds.),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Inc., 1985*
- 18) Kahna E and Kahna B : *Grandparentho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oping grand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3 : 98-105, 1970*
- 19) Kivett VR : *Grandfathers and grandchildren : patterns of association, helping, and psychological closeness. Family Relations 34 : 565-571, 1985*
- 20) Kivick HQ : *Grandparenthood : overview of meaning and mental health. Gerontologist 22 : 59-66, 1983*
- 21) Kivick HQ : *Dimensions of grandparenthood meaning : deductive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der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 1056-1068, 1983*
- 22) Kornhaber A : *Parenthood and the New Social Contract. In Bengtson VL and Robertson JF(Eds.),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Hills Inc., 1985*
- 23) Kornhaber A and Woodward KL : *grandparents/grandchild : the vital connection. Garden City, N Y : Anchor, 1981*
- 24) Matthews SH and Sprey J : *Contemporary grandparenthood : a systemic transi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464 : 91-103, 1982*
- 25) Matthews SH and Sprey J : *The impact of divorce on grandparenthood : an exploratory study. The Gerontologist 24 : 41-47, 1984*
- 26) Matthews SH and Sprey J :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grandparents : an empiric contribution to conceptual clarification. Journal of Gerontology 40(5) : 621-626, 1985*
- 27) Mead M : *Grandparents as eduactors. In Leichter HJ (Ed.), The family as educator.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1974*
- 28) Mead M : *Blcakberry Winter : my earlier years. New York : Morrow, 1972*
- 29) Neugarten BL and Weinstein K :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6 : 199-204, 1964*
- 30) Robertson JF : *Interaction in three-generation families, parents as mediators : towards a thoret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2) : 103-110, 1975*
- 31) Robertson JF : *Significance of grandparents : perception of young adult grandchildren. Gerontologist 16 : 137-140, 1976*
- 32) Robertson JF : *Grandmotherhood : a study of role conce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 165-174, 1977*
- 33) Thompson L and Walker AJ : *Mothers as mediators of intimacy between grandmothers and their young adult granddaughters. Family Relations 36 : 72-77, 1987*
- 34) Troll LE and Bengtson VL : *Generations in the Family. In Burr WR, Hill R Nye FI Reiss I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1) : 127-161. New York : Free Press, 1979*
- 35) Troll LE : *The family of later life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3 : 263-290, 1971*
- 36) Troll LE and Stapley J : *Grandparents : The family watchdogs. In Brubaker T(Ed.), Family relationship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Inc., 1983*
- 37) Wook V and Robertson JF : *The significance of grandparenthood. In Grium J(Ed.), Time, roles, and self in old age New York : Human Sciences Press, 1976*